

순천시, 개방정원 연계한 하반기 '열린정원 여행' 성료

10월 28일~11월 13일까지 87팀 106명 시민·여행객 참여 "정원을 보고 느끼는 색다른 경험으로 즐거운 여행 돼"

순천시는 개방정원으로 등록된 개인정원 8 곳을 연계한 '2022 순천시 하반기 열린정원 여행'이 87팀 106명의 시민과 여행객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열린정원 여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기간 중 금·토·일 3일간 하루 1회씩 총 6회, 야간투어와 주간투어로 나눠 운영됐다. 야간투어는 가을에 단풍이 곱게 물드는 매곡동 흥매가현과 고즈넉한 한옥이 돋보이는 낙안면 이씨고택정원에서 무알콜 수제맥주를 마시며 저녁 정원에 몰두해 보는 시간을 가졌

다. 주간투어는 철도역사와 함께한 조곡동 #672관사정원을 시작으로 4대가 가꾸어온 매곡동 매산동 100년정원, 작지만 소박한 옥전동 옥전담에서 정원주로부터 정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또 정원주가 만든 토우가 잘 어울리는 도사동 음악정원, 태어나고 자란 친정집에 다시 돌아와 가꾼 낙안면 숙희의 들, 소나무와 바위 그리고 차경이 아름다운 낙안면 석정원을 돌며 개성이 다른 정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정원주들이 어떤 계기로 정원을 꾸렸는지, 정원을 공개하게 된 경위 등을 공유했다. 정원에 찾아온 여행객들은 "정원주와 함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고 정원주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정원을 보고 느끼는 색다른 경험으로 즐거운 여행이 됐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행객들에게 정원이 단순히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닌 머무르며 쉬고 여유를 찾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내년에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시의 관광인프라를 위해 보다 나은 정원여행 소재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열린정원 여행'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했다. 상반기는 테마별 정원 투어로, 하반기는 일상에서 벗어나 쉽고 여유를 누



낄 수 있는 정원에 머무는 여행을 진행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민관군경 참석...통합방위태세 논의·군 안보현장·전투장비 등 확인



여수시가 지난 16일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2022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

여수=김현근기자

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정기명 여수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군·경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방위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사항, 군 안보현장 체험, 전투장비 견학과 예비군부대의 발전방안을 위한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민·관·군·경의 협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여수시 최초로 지역 안보현장인 예비군훈련장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고흥군, 기획공연 '지향의 국악 산책' 선보여

오는 29일 오후 고흥종합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공연

고흥군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3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기획공연으로 '지향의 국악 산책'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지향의 국악 산책'은 고흥에서 활동 중인 명창 지향전통예술보존회 라경자 이사가 고흥의 전통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이는 공연이다.

이날 공연은 ▲흥양아리랑 ▲가야금병창 '방아타령' ▲한국무용, '지진춤', ▲판소리, '흥보가' ▲퓨전국악가요, '숙대머리'와 '너영나영' ▲시나위연주, 대금·아쟁 병주(併奏) ▲육자배기 ▲사물놀이로 진도북춤, 김병섭류 설장구 등 뛰어난 국악으로 꾸며진다. 출연진은 지향전통예술회원을 비롯해 박애

숙 가야금병창을 포함한 무형문화재 이수자 7명, 전통연희예술단 굴명희, 보성아리랑예술단 등 뛰어난 실력을 갖춘 국악인으로 구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연 관람료는 1인당 1,000원이며 각 읍·면사무소, 고흥 작은영화관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당일에는 고흥문화회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국악 공연은 라경자 명창이 공을 들여 준비한 공연으로 뛰어난 국악인들이 대거 출연한다"며 "많은 군민이 흥겨운 공연에 함께해 우리 국악의 흥과 열정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2022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광양시는 지난 17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관계기관,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이 삶의 주체로서 더 존중받고 더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

됐다. 교육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광숙 과장을 초빙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및 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주요 사례 소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역할(상황별 대처방법) 등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 현장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광양=김현근기자

보성군, 신품종 감자 확대 보급 평가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 16일 감자재배 농업인과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기작 신품종 감자 '금선'의 확대 보급을 위한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보성감자 주산지로 유명한 회천면에서 열린 이번 평가회는 시범농가에서 수확시연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주요 품종(추백) 대비 신품종인 '금선'의 작황, 내병성, 수량성, 품질, 식미 등의 현장 비교 평가를 실시했다. 현장평가를 통해 신품종 감자 확대 보급 사업에 중요성을 공유했으며, 신품종의 우수성을 감자재배 농가에서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보성감자 주산지로 유명한 회천면에서 열린 이번 평가회는 시범농가에서 수확시연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주요 품종(추백) 대비 신품종인 '금선'의 작황, 내병성, 수량성, 품질, 식미 등의 현장 비교 평가를 실시했다. 현장평가를 통해 신품종 감자 확대 보급 사업에 중요성을 공유했으며, 신품종의 우수성을 감자재배 농가에서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 농가에 따르면 "신품종 감자(금선)가 기존 품종(추백)보다 수확량이 많고 품질과 맛까지 뛰어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니 앞으로 수확량 증대와 재배 면적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17년부터

보성=김명순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